

투표지 부족 사태...선관위 사무총장 “깊이 사과”

“서울 14개 투표소에서 문제 발생 송파구, 유권자 50% 규모로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허 사무총장은 이날 밤 경기도 과천시 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했으며,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실망을 드리게 돼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잠실7동 2 투표소의 경우는 대기표를 배부받은 유권자에게 한해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재수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가 “18시20분 기준 총 14개 투표소”라며 “송파구의 12개 투표소, 강남과 광진의 각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 기준으로 송파구 가락2동, 잠실2동, 잠실4동, 잠실7동, 문정2동, 강남구 청담동, 광진구 구의3동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동석한 이상은 선관위 선거1국장은

“유사한 사례가 과거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며 “14개 투표구 외에 다른 보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윤 실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원인에 대해 “송파구 같은 경우는 투표소가 총 146개 있다 보니, 일부 투표구의 경우에는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투표용지 부족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50%의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우에 따라 특정 투표구의 투표율이 높거나 사전투표율이 아주 낮아 (용지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분석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개표를 무사히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허 사무총장은 “투표를 다 마치고 개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표를 무사히 마쳐야 하고, 상황 파악해서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그 이후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개숙인 선관위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경기 과천시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11곳·국힘 1곳 승리, 경합 4곳...방송3사 출구조사

서울 정원오 51.4%·오세훈 46.0%
JTBC 민주 10곳·국힘 1곳 승리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을 비롯한 11곳에서, 국민의힘은 경북 1곳에서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구·전북·강원 등 4곳은 경합지로 예측됐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함께 이런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민주당은 서울(정원오)과 경기(추미애), 인천(박찬대), 경남(김경수), 울산(김상욱), 대전(허태정), 세종(조상호), 충남(박수현), 충북(신용환), 제주(위성곤)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경북지사 선거의 이철우 후보(69.7%)가 민주당 오중기 후보(30.3%)에 승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최대 격전지로 꼽힌 서울시장의 경우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51.4%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46.0%)에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장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50.2%)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48.3%)가 접전을 벌였다.



‘신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 마련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침울’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인석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부겸 후보(49.1%)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49.9%)가 맞붙은 대구시장 선거는 초박빙 지역으로 예상됐다.

전북지사의 경우 민주당 이원택 후보(48.5%)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46.3%)의 예상 득표율 차이가 근소했다.

강원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이상호 후보(61.3%)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48.7%)가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6개 시·도의 61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입소스·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네셔널이 실시한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최소 약 ± 1.7%p~최대 약 4.1%p(95% 신뢰수준)이다.

한편, JTBC는 자체 예측조사를 토대로 민주당 10곳, 국민의힘 1곳 승리를 예상했고, 대구·충남·충북·전북·경남 등 5곳은 경합지로 분류했다.

서울시장은 민주당 정원오 후보 53.5%,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42.9%, 정 후보가 10.6%p 차이로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부산시장의 경우 정전지로 분류한 방송 3사 출구조사외는 달리 민주당 전재수 후보(53.9%)가 박형준 후보(44.4%)에 앞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경기, 인천, 전남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제주 등에서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예측됐다.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 정청래 대표 비판...퇴진 촉구

투표 마감 동시에 폐북에 글 올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청래 당대표를 비판하며 퇴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6·3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3일 오후 6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6·3 1800 투표 종료! 이 시간만 기다렸다. 민주당을 흡입 낼 수 없어서”라며 “이 시각부터 (정청래를) 당 대표에서 끌어내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호남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오만한 당 대표에 의해 우리 호남인은 철저히 외면받았다”며 “광주·전남 시·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우롱한 정청래 대표는 호남 팔이 집어치우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민주당의 분산, 호남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도부 교체에 연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민형배 후보에게 패배한 김 지사는 여론조사 전화 2천308건이 끊기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네”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시세반값 초급매 물건들입니다]

- 유동로타리 35미터대로변코너 꼬마빌딩/상속분 땡처리 주차4대/매2억5,900(미니커피,제과,꽃집,선물코너최적)
- 유동 모텔5층건물 룸20개주차4 급매3억2,000(사무실용도최적)
- 송정동 역출구150미터 초역세권 상업지 2차선전 대106평 평당300총가3억1,800(구옥임음)식당,사옥,다가구용최적
- 광주역대로변 광장코너 다이아몬드 땅93평 급매11억

○ 매곡동 대단지 아파트 입구대로변 코너 대311평 급매평당650

○ 북동 대로변코너 횡단보도앞 상업지대188평 5층빌딩 감정기35억 급처분가 29억/재개발입주권3개는 덤입니다

[교환]
상가 모텔 주택 땅 교환합니다(웃돈도 줍니다)
###연락주세요/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급여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내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